소년 예수의 김밥천국

(눅2:40-52)

40.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41.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소년예수의 김밥천국>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소년예수의 김밥천국'

여러분, 어느 때 김밥이 제일 맛있습니까?
어머니께서 김밥을 싸실 때 마주 앉아 있다가, 김밥을 다 싸고 써실 때 그 김밥 끄트머리 부분을 먹는 것이 저는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김밥은 그냥 김밥포장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씩 주워 먹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정식으로 식탁에 앉아 가지고, 접시에 다 썰어놓은 김밥을 차곡차곡 올려놓으면 맛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가 김밥 싸실 때가 기억이 납니다.
김밥 재료를 도마 앞에 쭉~ 늘어놓습니다.
생각나는 게 단무지, 우엉, 당근, 달걀지단, 햄, 게맛살, 시금치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김밥 싸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니까, 인상 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밥재료가 혹시 남게 되면, 예를 들어 단무지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단무지를 다른데 쓰시지 않고, 단무지 하나만을 넣고서라도 김밥을 다 싸십니다.

그리고 재료들의 이 줄어드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조금 많이 남을 것 같은 재료 부분이 있으면 하나를 더 넣거나, 뭐 예를 들어 햄이 좀 더 남을 것 같다 계산이 되면, 햄을 두 개를 넣거나 당근재료를 좀 더 듬뿍듬뿍 넣어서 김밥을 싸서, 하여간 김밥의 재료들이 다~ 김밥 안으로 들어가도록 김밥을 쌉니다.
김밥을 쌀 때 가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김밥 쌀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김밥은 주워 먹고 싶은데 김밥이 썰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때 침을 꿀꺽 삼키면서 아무 재료나 하나 집어서 들고 다니면서 먹게 됩니다, 햄이라든지 뭐 달걀지단 같은 것들.
이때 어머니께서 맨 처음에 집어 갈 때는 잘 모르고 계시다가, 눈치를 못 채고 내버려 두시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집으려고 하면 제 손을 탁~탁 때리십니다.
김밥이 다 싸지거든 먹으라고…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김밥이 싸지는 김밥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인의 삶은 김밥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나이 많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구원을 보았사오니 천지의 주재께서 나를 평안히 놔 주시는구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가짐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떠날 각오가 되어있지 않으면,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가짐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약혼을 하고도 다른 청년과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데이트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측근이 된다는 얘기이고,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얘기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도 하나님이 이유일 수밖에 없고, 슬픔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슬퍼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안에 남아 있으면서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데오빌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자.
자! 그런데 시몬은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 만나고 곧바로 죽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기 죽음을 직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남아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이 세상을 삶은 김밥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입학해야 되고, 졸업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애기 낳아야 되고, 애기 돌잔

치 해야 되고, 아파트 사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자동차 사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일들, 사건들, 통과의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 김밥재료라는 거예요, 데오빌로들의 김밥재료라는 겁니다.
데오빌로들의 이 세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마음이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서, 내 몸이 남아있는 삶이 수도원적인 삶을 이상으로 삼고 산다든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애인 만나서 데이트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애도 낳고 삽니다.
돈으로 자동차도 사고, 옷도 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김밥재료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싸서 김밥을 만드는 그 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이 땅 위에서 인생이 진행될 때에, 김밥재료로서 있는 인생의 모든 사건과 일들이 김밥 바깥에서 따로 놀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가 김밥 쌀 때 김밥재료를 따로 하나 집어서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것처럼.
예를 들어 결혼이라는 것, 결혼도 김밥재료에요.
결코 기독교는 금욕주의나 수도원적 삶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일어나야 될 일은 다 일어납니다.
결혼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당신의 뜻으로 둘둘 말아서 김밥으로 만들 때에 들어갈 재료들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냥 결혼합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배우자와 함께? 아니지요.
연애합니다, 데이트합니다.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데이트라는 것도, 연애라는 것도, 애인이라는 것도 다~ 김밥재료 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김밥 안에서 싸여져야 되지, 김 바깥에 따로 노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애인을 만나 데이트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취직하는 것, 내 뜻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취직하는 것, 이거 전부 김밥재료를 따로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데오빌로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떠난 다음에, 일어나야 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김으로 싸여져야 될 김밥 재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주님이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뭡니까?
이 본문의 가치가 참 대단한 것이에요.
유년기 예수님에 대한 보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근데 이 보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유전죄가 예수님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소년, 한 인간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유전죄가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모~든 그 긴긴 역사의 기록을 다 뒤져봐도 유전죄 없는 인간이 사는 모습이 없고, 공자의 가르침을 다 뒤져봐도 없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다 뒤져봐도 유전죄 없는 인간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유전죄 없이 태어난 인간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록은 천하에 없고, 여기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글씨 잘 쓰는 서예가에게 부탁해 가지고 이 부분을 글씨 써가지고 족자로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도 될 일입니다.

자, 이 이야기 뜻하는 바가 뭘까요?
유월절이면 모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지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 지내게 됩니다, 7일간,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그때 나이가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13살이면 이제 율법에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되고 성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한두 해 전부터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으로서 성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 명절에 따라 갔다가 돌아오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안 따라오는지 모르고 하룻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없는 걸 발견을 하고 돌아오는데 하룻길, 그리고 사흘째에 예수님께서 성전

에서 위대한 스승들, 그 당시에 위대한 스승이라 그러면 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 속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런 대석학들이 있었는데, 이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토론회를 세미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2살 난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도 놀라고 마리아와 요셉도 놀라고.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꾸지람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당황하고 놀라게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마디 말씀입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일성이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는데, 여기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르지요 그렇죠? 다른 복음서하고.
마태와 마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끌고 갑니다, 가까이 온 천국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가의 관심은, 천국을 마음으로 가진 자, 세상을 떠난 자의 이 몸이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성전이 아버지 집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이라고 해석한 이 단어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집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래서 아버지 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일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들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킹 제임스버전 영어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
내가 아버지의 비즈니스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단 말입니까,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안 보이면 으레 내가 아버지의 일 안에 있거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거나 아버지의 일 속에 있는 줄 아실 것이지, 왜 놀래서 겁내서 찾았습니까, 왜 당황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그 분들이 예수님의 부모라면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을 볼 때 부모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당연히 나의 진짜 부모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의 일 안에 있을 것으로 미루어 생각을 하셨어야지…

아! 12살 된 예수님, 사춘기일까요?
왜 이렇게 부모님하고 엇나가는 듯이 이렇게 말로 말싸움 하듯이 한 태도를 보이실까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
누가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첫마디 속에서, 유전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까? 또 그 유전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얘깁니다.
구원 받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미루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면, 세상의 관습이 이 세상이 인지상정이 기대하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룻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몰랐던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 왔냐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오거나 친척이 무리를 지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한 군데 머물러 있다가 명절이 끝나면, 그 무리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남자나 성인 나이 된 남자 아이들은 뒤쪽에서 걸어가고,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앞쪽에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관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굳이 찾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무리 중에 나사렛에서 같이 올라온 그 무리 중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관습상, 사회 규정상 마땅히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있는 분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곳에 있지 않으시고, 완전히 다른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시고 머무시고 계셨다는 얘깁니다.
그 다른 동기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12살 된 소년 예수님 안에는, 이제 성인으로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 자기의 호불호 선악을 따지는 판단이 설 그 나이에, 자기의 것이 다~ 없어지고 아버지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에요, 벌써, 이미 언제부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 안에만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일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아버지의 일 안에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한없이 부모님과 부딪치게만 생겼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에서 움직이는 동기가 완전히 다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이 가셔서 '섬기고 순종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12살 되기까지, 12살부터 뭐 공생애하기 전까지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했다는 이 표현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서 순종한 것이지,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미움 받고 죽으십니다.
그러면 자라는 과정 중에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 하신 것들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셨다는 얘깁니다.

사람들에게 맞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수님의 삶은 김밥천국 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 김 바깥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행동도 소원도 계획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뜻 안, 뜻이라는 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햄이라는 예수님의 행동이 있고, 단무지라는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시금치라는 예수님의 사건이 있고.
모~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 일들 생각들 판단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김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제가 어머니가 김밥 쌀 때 따로 김밥재료를 손가락으로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것처럼, 내가 따로 내 의지와 내 소원과 내 판단을 따라서 내가 따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
그러니까 전부 김밥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동차를 사는 것, 내가 집을 사는 것, 결혼하는 것, 애인하고 데이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김밥재료에요.
그걸 따로 내가 들고 다니면 안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김밥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귀결되느냐?
다~ 김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어머니께서 늘어놓은 그 여러 가지, 열 가지가 넘을 수 있는 김밥 재료들이, 하나도 김밥 바깥에서 나뒹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과의례, 결혼이라든지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모든 필수품들을 사야 되는 것 집과 자동차와 옷과 이 모든 것, 그리고 취직 결혼 이 모~든 일들이 다 김밥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시려고 하는 김밥재료.
우린 이제까지 그것을 따로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방향을 세우고 하나님께 일어나려고 기도했어요.
이런 건 신앙인의 삶이 아니에요.
김밥천국이 돼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김밥재료를 내가 따로 들고 다니려고 그럴 때 손을 때립니다.
우리 마음이 내 결혼문제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애인과의 데이트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차를 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소원합니다.
이럴 때마다 그 김밥재료를 따로 들고 가려는 내 마음을 십자가로 때리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생각한 김밥재료에요, 모~든 것이 다.
금욕주의도 아니고, 수도원에 가서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짓을 하며 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단지 모~든 것들이 김밥재료인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로 그 재료들을 내 소원, 내 기쁨,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따로 들고 다니려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함을 통하여, 내 인생에서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 김 안에서 잘~ 싸여져서 김밥으로 완성되는 김밥천국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인생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김 안에 쌓여져야만 되겠습니다.
김 바깥에서는 나뒹구는 재료가 없어야 되듯이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인 김 바깥에서 내 뜻에 의해서 집어지고 움직여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내 삶이 김밥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